



61

폐기물 운반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
기관지확장증

성별	남	나이	37세	직종	폐기물 운반 작업자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최○○(남, 37)은 1991년 3월 2일부터 S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8년 3월 Y대학교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최○○은 27세 때인 1991년 3월 2일 S사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1998년 봄까지 적재량 7톤의 탱크로리 2대를 조수 1명과 함께 전담하여 월 평균 20회 정도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폐산과 폐알카리 및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수거하였으며, 월 1~2회 정도 탱크로리 내부 청소도 하였다. 월 1~2회 폐기물 배출업체의 폐수장 청소와 월 4~5회 슬러지 제거작업 후 운반하였고, S사의 자체 소각로를 월 1~2회 정도(3개의 소각로 각각에 대해 1~2개월에 한번씩) 청소하였다. 1998년 봄 이후 2001년 5월까지의 집계차로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고체 폐기물을 적재한 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. 과거 농사를 지었고, 호프집 및 맥주 대리점에서 일하였다.

3 의학적 소견

최○○은 원래 흡연하지 않았고, 과거 병력상 결핵 등 폐질환 기왕력이 없고, 가족력상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어머니가 고혈압을 앓고 있으나 3남 1녀 형제

모두 특별한 병력이 없다. 2000년 11월 제4-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. 기침 및 진하고 누런 객담과 2일 전부터 시작한 발열로 1997년 5월 폐렴 치료를 받았다. 그 후에도 기침과 객담이 반복되어 1998년 3월 Y대학교병원에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한 결과 좌하엽, 좌상엽의 설상부, 우상엽의 후상엽구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받았다.

4 결 론

최○○은

- ①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되었는데,
 - ② 진단되기 7년 전부터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액체 상태의 폐기물을 수거, 운반하면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사고성 고농도 노출력이 없고,
 - ③ 저농도로 이들 물질에 노출되어 만성적으로 기관지확장증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,
-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